contents 목차

18 **전국한우협회소식**
중앙회 소식, 도지회 및 시군지부 소식

특집

30 **한우 마블링, 건강에 도움된다**

38 **김영란법, 수입축산물 촉진법 된다**

41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농가 피해 없어야**

44 **반갑습니다**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 필요 – 강호경 부산·경남도지회장

48 **현장취재**
TMR사료 자가 생산해 연간 사료생산비 40% 절감 – 삼솔농장 한기웅 대표

52 **컨설팅**
한우의 효율적인 번식관리 방안 / 송준익

58 **축산과학원 코너**
한우도 더위를 탄다 / 양승학

62 **질병**
콕시듐 만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김성년

66 **방역**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68 **건강정보**
막상 당하면 힘들어지는 교통사고!

70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 뉴스

72 **공지사항**
전농가 회원화 추진 계획

74 **한우뉴스**
업계소식 / 한우소식











월간 한우마당 2015.5

제17권 제5호(통권115호) | 2016년 5월 25일 발행 (비매품) | **발행인** 김홍길 | **인쇄처** 한국농어민신문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 **전화** (02) 525-1053, (02) 597-2377
팩스 (02) 525-1054 |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 **등록번호** 서초 라 11499

전국한우협회소식

중앙회 소식

‘김영란법’ 속타들어가는 한우농가

“현실외면·농축수산물 제외하라” 강력 촉구와 입법예고 대응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에서만 2,493억~4,15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농축수산물의 수요위축이 심각해져 농축수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12일, 한우협회를 비롯해 26개의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장 개방 파고 속에서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인삼, 과일 산업 뿐 아니라 사료·동물약품·도축·육가공·포장·택배·외식산업 등 전후방산업이 모두 위축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마저 우려한 실물경제 위축이 불보듯 뻔한 이 법을 FTA로 농업·농촌이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농축산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고 각 당 대표를 면담하는 한편 권익위에 시행령 제정 의견을 제출했다.

"마블링, 몸에 이로운 지방산 제공"

국제 석학 초청 심포지엄에서 주장



한우 마블링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을 제공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영록, 김춘진)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축산식품학회가 주관한 '쇠고기와 건강에 관한 과학적 고찰 국제심포지엄'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FTA 등 개방화 속에서 고급육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색육과 마블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잇따라 형성되면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열리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반드시 막겠다”

기자회견 진행, “농가 종속화, 계열화 사업 근본적 차단”



우리협회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협회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대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더욱 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길 회장은 “축산업은 1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 수익은 농가가 아닌 기업이 가져간다”며 “대기업 진출로 인해 농민의 권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무진장축협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도 대기업 진출을 막기 전에 생축장 및 위탁사육 문제를 정리해야 명분이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올해 대기업 진출 저지가 본격 시동이 걸린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 소득보장장치마련 시급

‘관세 제로’ 시대 한국축산 생존방안 워크샵 개최

FTA체결에 따라 관세장벽이 무너져 내려 수입축산물이 국내 축산물 시장을 잠식해가는 요즘,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열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최로 ‘관세 제로’시대 한국축산 생존방안 워크샵이 지난 4월 26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우리협회를 비롯해 각 축산단체장과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한 이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 생산비 절감 및 소득보장 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농가는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 정책을 체감할 수 없으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료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가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보장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농수축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와 농협, 축산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맞손'

농관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MOU 체결



건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인들과 농관원이 손을 잡았다.

지난 20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관원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관원은 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선 고품질 국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하는 한편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위한 시료를 제공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의 정착을 위해 축산 농업인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6 효 콘서트 한우국밥 지원

5천여명 관람, 성황리 폐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협회와 대구 한국일보가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5,000여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해 인기 트로트가수와 명창들이 흥과 재미, 감동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리 협회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관람객들의 점심을 지원했다. 김홍길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공연을 보기 위해 한우국밥을 대접 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5월에는 한우와 함께 즐겁게 보내요

'가정의 달' 한우고기 할인행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4.28~5.13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할인행사는 최근 가격 상승으로 한우고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국 대형마트, 농협계통매장 및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한우전문 매장에서 2등급 이상 등심, 불고기, 국거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25%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도지회 및 시군지부 소식

서울·인천·경기도지회

"2,500명 가입 목표, 회원수 확대에 최선을"

시군지부장 회의에서 회원 확보 노력 당부



경기도지회(지회장 홍재경)는 올해 회원 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는 지난 4월 29일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차 시·군지부장 회의 및 한우자조금 대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시군지부장들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농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홍재경 지회장은 "한우협회가 더욱 힘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협회 회원으로서 힘을 실어야 한다"며 "서울·인천·경기도지회에서도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10월경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청 김영수 축산경영팀장은 올해 경기도의 한우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10월 7일과 8일에는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를, 28일부터 30일까지는 경기 명품한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농가들이 열심히 생산한 한우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지회

‘강원도 축산단체협의회’ 출범

축산농가-지자체 가교역할



강원축산 발전을 위해 강원도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도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협의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원도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인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축산농가 권익보호 및 증대를 위해 출범한 강원도축산단체협의회는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박영철 회장이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박 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강원도 축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축산농가와 지자체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요

도지회, 한우곰탕 5000인분 전달



강원도지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사랑의 한우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도사회복지협의회에 1800만원 상당의 한우곰탕 5000인분을 전달했다. 박영철 한우협회 도지회장은 "앞으로도 협회차원에서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지회

"안전한 한우 싸게 드세요"

충북한우사랑축제 개최

충북도지회(지회장 박병남)가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한우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충북한우사랑축제를 개최했다.

한우협회 충북도지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청주시 용암동 농협충북유통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메인 행사는 먹거리 장터이다. 먹거리 장터에는 청풍명월한우사업단과 제천단양축협, 보은옥천영동축협, 괴산증평축협, 농협충북유통, 옥천한우협회 등 6개의 지역 대형한우업체들이 참가해 한우를 15% 이상 할인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먹거리 장터에서는 현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바로 구어먹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운치를 즐기기도 했다.

21일에는 개막식인 한우국밥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희망풍선 날리기, 시·군 대항 팔씨름대회, 축산인 노래자랑, 7080라이브 한마당, 한우시식회가 진행되었고 둘째날에는 민속놀이 한마당과 직장인 밴드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축하공연에는 걸그룹 인스타와 하동진, 이정옥, 신윤성 등 인기가수들도 출연하는 등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행사가 되었다.

박병남 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한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며 "안전한 국내산 먹거리로서의 한우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전북도지회

전북 명품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

전북 한우 브랜드 참가, 할인판매 진행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매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단풍미인한우가 참여해 행사기간 동안 한우등심 1등급을 기준 시중가격 보다 2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한우국밥 무료 나눔 행사, 불고기 시식회, 한우 퀴즈대회 등을 진행하며, 방문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우고기를 이용한 요리 시연회, 깜짝 경매, 다트 선물행사 등 특별 이벤트도 다채롭게 운영했다.

광주·전남도지회

광주전남 명품한우 대축제 개최

함평나비축제와 연계하여 방문객 대박

제5회 광주전남 명품한우 대축제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나비축제가 한창인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했다. 전남도지회(지회장 민경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함평천지한우와 나비의 향연'을 주제로 함평천지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행사기간동안 한우불고기 시식 및 할인판매를 비롯해 즉석



한우경매와 다트게임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방문객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민경천 회장은 "전남에 있는 4만 한우농가가 안전한 한우를 만들기 위해 방역과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도지회

'축산인 한마음대회·소비촉진행사 개최'

소비자 생산자 상생·화합 한마당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문형재)는 13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축산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2016 축산인 한마음대회 및 소비촉진행사'를 열고 경북 새천년 원년을 축하하고 한우산업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민들과 상생의 장을 열고, 경북축산인과 도민이 다함께 이익을 공유하며 더 나은

축산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도지회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한우시식회, 할인판매행사, 이벤트, 경품행사, 축하무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화합하여 경북의 축산업 발전을 다짐했다.

한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주시지부, 축산과학원과 종합컨설팅 진행



영주시지부(지부장 김삼주)와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한우사육에 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일 2개팀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이산면 신암로 이산농장을 시작으로 팀당 3농가를 방문하여 농장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농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4일에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한우 사육전망, 한우개량, 번식우 관리, 가축질병, 축사환경, 축산경영 등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와 대화하며 문제점에 대해 모색했다.

부산·경남도지회

즐거운 한우불고기 점심시간

거창군지부, 급식을 통한 맛 체험 '호응'

거창군지부(지부장 최동윤)는 양동인 거창군수와 거창축협장(최창열)과 함께 지난 10일 거창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거창한우(애우) 맛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동인 군수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하고 점심을 함께



하며 애우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직접 챙겼다. 이번 행사는 한우를 성장기 학생에게 제공해, 맛있고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한우 불고기맛을 선보임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한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거창군지부는 지난 2일 중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3일 거창중학교까지 지역 5개 학교에 한우불고기용 255kg를 전달했다.

제주도지회

한우는 역시 제주한우

직거래 할인판매장 운영, 성황리 진행



제주도지회(지회장 김맹종)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직거래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할인행사는 제주산 한우를 시중가 대비 25~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8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경품세트를 증정했다. 또 제주산 한우고기 무료시식 이벤트와 쇠고기 등급판정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우 전시회도 병행 운영했다.



특집 1

한우 마블링, 건강에 도움된다

한우에 포함된 올레산 등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도움
서구 비해 낮은 쇠고기 섭취량, 건강에 영향없어
쇠고기와 건강에 관한 과학적 고찰 국제심포지엄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과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축산식품학회가 주관한 '쇠고기와 건강에 관한 과학적 고찰 국제 심포지엄'이 4.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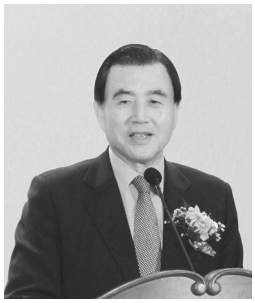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FTA등 개방화 속에서 고급육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의 마블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당선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는 아일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축산 및 식품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한우의 마블링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제공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인사말



"마블링 문제, 접점 잡아 해결해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우리 한우는 국민 건강과 농촌 소득에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다. 세계 300만두 밖에 없는 유일한 품종이다. 하지만 지방 분포에 따른 등급제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경청해보고 마블링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등급제가 변화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데 한우농가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접점을 잡아 잘 해결해야 한다. 세계 석학들을 모신 가운데 '마블링'을 놓고 한국 축산의 방향을 잡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우 유전자원의 우수성 재평가 받아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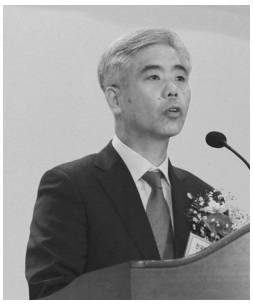
그동안 한우농가로서 개량에 열정을 부어왔는데 우리 한우 유전자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잘 살리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이 사회적인 평가를 못 받고 오해를 사고 있다. 오늘 마블링을 조명할 기회를 갖는 심포지움을 환영하며, 앞으로 현장의 경험을 살려 정책을 펴는데 노력하겠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윈-윈 기회 만들자”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지금 한우의 마블링 때문에 소비자와 갈등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윈 윈(win-win) 하는 기회를 만들자. 홍문표 의원님께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결론을 내길 바란다. 결론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 인식 전환해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한우농가들은 한우를 대한민국 100대 문화유산이자 유전자원으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부심을 갖고 기른다. 등급제, 마블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등급제는 UR,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 품질고급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력해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설왕설래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논의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최근에는 식물성 지방만 먹어도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보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단점만 부각하는 편협한 인식이 건강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주제를 통해 모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과학적 사실 올바르게 알릴 것”

이성기 축산식품학회 회장

축산식품학회는 축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학회하고 보면된다. 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궁금증도 많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드문데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이다. 소비자는 조그만 위해요소도 걱정을 하는데 과학적 사실보다 과장되어 부

정적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 계란, 한우가 피해가 많았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동물성 지방이 다 나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트렌스 지방이 동물성지방보다 더 나쁘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물성과 비슷한 불포화 지방도 많이 들어있다. 이처럼 학회는 과학적 사실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해나가겠다.

주제발표

쇠고기 마블링, 좋은 식사와 좋은 영양소 제공
<쇠고기 근내지방의 섭취가 가지는 의미>



Dr. Declan Troy 소장
아일랜드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 근내지방에 대한 연구결과 마블링은 소고기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온다.

○ 고밀도 불포화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성장과 발달, 심혈관계를 개선하는 등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데, 육질 등급별 불포화지방산 수치를 조사한 결과 "단일불포화지방산의 경우 USDA Select 등급(미국의 8개 쇠고기 품질등급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등급) 쇠고기에서 0.75 수치가 나온 반면 USDA Prime 등급(가장 높은 품질등급, 지방이 많은 등급) 쇠고기에서는 1.33이 나와 등급이 높을수록 단일불포화지방산이 높았다.

○ 등급이 높을수록 마블링이 많은데, 이 마블링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 쇠고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 한국의 쇠고기 섭취량은 11.6kg으로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 서양대비 절반 이하로 섭취하고 있다.

○ 쇠고기 정육에는 소시지, 햄버거에 비해 낮은 비율로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함유량은 높다.

○ 전체 에너지의 30%를 지방에서 공급받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쇠고기의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은 총 식품대비 30% 이하일 것이다.
○ 지방중에도 좋은지방과 나쁜지방이 있는데, 마블링에는 올레산 등 좋은 지방은 50%, 포화지방은 42%이며, 포화지방 중에도 스테아르산과 같은 몸에 좋은 지방도 있다.
○ 가공식품에는 나쁜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생육에는 트랜스지방이 없다.
○ 최근 연구에서는 지방보다 당 섭취가 더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마블링은 좋은 지방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고기는 영양가 있는 식단에서 매우 중요하며 더 많은 유효 지방산을 제공할 수 있다.

근내지방이 높은 쇠고기에 소비자 선호도 높다
<근내지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Dr. Robyn Warner 교수
호주 멜버른대학교



○ 소비자는 외관으로는 2등급 정도의 지방분포가 낮은 쇠고기를 선호한다고 답하지만, 스테이크 조리시에는 마블링이 있는 쇠고기를 선호했다.
○ 눈을 가리고 조리된 소고기를 제공했을 때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한다.
○ 소비자는 소고기에 대해 외관평가/맛평가에 대한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데, 업계가 이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
○ 여러 실험에서 지방이 높아야 단맛, 우마미, 풍미, 다즙성, 연도가 높게 나타났다.
○ 지난 50년 간 동물성 지방에 대해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호주에서도 등급평가시 마블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육색과 육질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육색기준은 삭제할 예정이다.

○ 호주에서도 마블링은 중요한 기준으로 마블링이 높은 쇠고기는 소비자의 호응이 높다.

○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지방이 섬세하고 높은 포만감을 가지는 마블링이 있는 쇠고기는 지속 가능한 쇠고기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레산 함유한 쇠고기의 건강성 증가
<마블링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양적 요인>

Dr. Stephen B. Smith 교수
미국 Texas A&M 대학교



○ 한국과 일본 소비자들은 최근 쇠고기의 높은 지방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임상실험 결과 올레산을 많이 함유한 쇠고기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일본은 서구권 국가에 비해 심혈관 발병율이 낮은데, 그 위험도가 미국, 영국보다 1/3이나 낮다.

○ 곡물급여 쇠고기나 목초급여 쇠고기를 섭취하면 모두 몸에 좋은 HDL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쇠고기를 먹어서 콜레스테롤 총량이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HDL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건강에 좋은데, 한우는 높은 편이다.

○ 소고기 섭취를 많이 하면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올레산이 높은 쇠고기 섭취시 질환과 관련된 나쁜 단백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일반적인 쇠고기보다 지방함량이 더 높은 다짐육 패티를 섭취한 실험군에서도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증가되지 않았다.

○ 쇠고기의 올레산 농도를 높이면 기호성이 높아지고 쇠고기 지방의 녹는점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 직접 적용한 임상시험을 통해 지방이 높은 쇠고기를 많이 급여한 그룹에서 LDL콜레스테롤 또는 비만 관련 요인들이 증

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레산을 많이 함유한 쇠고기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영양성분 인체에 중요한 영양 공급
<일본 흑우와 와규의 매력적인 마블링 쇠고기>



Dr. Takafumi Gotoh 교수
일본 큐수대학교

○ 1998년부터 2004년 동안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일본의 등급제가 변화해왔다.

○ 지방 또는 고칼로리 섭취는 건강을 위해 금지하라고 하지만 소고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내성을 키워주고 심장근육의 균형을 유지한다.

○ 단백질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뇌혈관 질환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높여주며, 아미노산가가 100인 완벽한 영양식품이며 쇠고기 단백질 흡수율은 97%에 달한다.

○ 트립토판, 타우린, 류신, 카르니틴, 마이오글로빈, B6, B12 등 다양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인체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 섭취한 쇠고기의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축적된다며,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지방산(단가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의 중요한 역할이 밝혀졌다.

○ 한우 지방에 CLA, 올레산, 스테아르산, 아라키돈산 등 중요한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본 흑우와 와규의 매력적인 마블링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성분이 될 수 있다.

○ 마블링에는 우마미(감칠맛)를 높이는 지방산인 이노신산, 글루탐산이 많아 감칠맛이 높다.

○ 높은 혈당수치는 혈관에 손상을 주며 혈관세포에 상처가 발생하면 혈전을

형성할 수 있는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를 낮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우고기의 지방은 섭취시 체내 인슐린 증가를 유도하지 않는다.

○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방, 고기의 섭취를 늘리는 케톤체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제한으로 케톤체가 생성되면 장수 유전자 발현, 산화방지, 안정된 식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다.

○ 앞으로 농민을 위한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을 포함한 흑모화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집 2

“김영란법, 수입축산물 촉진법 된다”

농민단체 김영란법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청와대 방문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농축산 분야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조항 없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수수를 제한함으로써 완전 개방시대에 진입한 농축산인과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축산인 대표와 함께 12일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농축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 존폐 걱정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은 “우리 농축산인은 FTA 최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커녕 김영란법으로 산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상임대표로서 목숨을 걸고 김영란법 철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인삼연합회 황광보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6차산업은 허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생산, 판매, 유통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6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농축산 전후방 산업 위축 불보듯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인삼, 과일산업 뿐 아니라 사료·동물약품·도축·육가공·포장·택배·외식산업 등 전후방산업이 모두 위축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마저 우려한 실물경제 위축이 불보듯 뻔한 이 법을 FTA로 농업·농촌이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회장은 또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으며, 끝까지 투쟁하여 정부, 국회와 싸워서라도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은 “과일, 고기, 꽃, 인삼을 선물로 받고 되팔아 재테크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주고받는 선물을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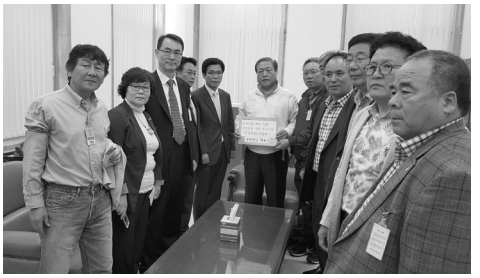
국회, 청와대에 농민 성명서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예외를 촉구한다’며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고 기자회견 이후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회장, 고려인삼연합회 황광보 회장,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김근수 회장,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조우현 회장등 농민단체장은 국회 3당을 방문해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농축산인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를 방문해 농수산식품 비서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 농축산인의 바램을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등 시행령(안)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위로부터 국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방문 모습.



특집 3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농가 피해 없어야”

- 국내 농축산물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한우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선물세트 소비위축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등과 같은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협회는 적폐를 뿌리 뽑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법에는 옥의 티가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 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 농축산업은 그동안 FTA로 인해 피해를 보아왔고 이를 감수하면서 국익을 위한 양보아닌 양보를 해왔다. 한우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면 이 법이 자칫 국내산 농축산물의 선물 기회는 막고 오히려 수입산을 장려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우는 5천년 민족과 함께 해 온 민족산업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한우농가 뿐 아니라 한민족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에도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어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 법 내용

- 주요내용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시행시기 : 2016. 9. 28

2. 김영란법 시행령(안) 상한가액

- 식사비 상한 : 3만원 유지
- 선물값 상한선 : 0→5만원
- 경조사 상한가 : 5만→ 10만원

3.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선물 상한의 문제 : 한우산업에 큰 충격으로 농가불만 팽배
- 한우는 명절 선물 선호도 1위임
- 명절 소비가 평월의 1.6배 수준임 (평월 78천두 → 명절 125천두)
- 양대 명절 8,300억 수준소비 (양대 명절 소비위축 : 4,200억원 매출감소)
- 한우선물세트 가격 93%가 10만원 이상(2015년 기준)

(20만원 이상 58%, 10만원 이상 35%, 10만원 이하 7%)

○ 식사 상한의 문제 : 한우 접대 불가로 소비위축
- 3만원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침
  (외식업 중앙회 : 중식 33천원, 한우 75천원, 일식 80천원)
- 식당 한우소비 60% 감소 : 6,000억원이상 감소 피해
  음식점 소비(식당소비) : 40%수준

○ 총 피해액(선물+음식점) : 1조원 이상의 피해 예상

4. 문제점

- 한우는 FTA 최대 피해산업(관세 40% 철폐)
- FTA 피해에 국내소비위축으로 정부신뢰 추락
- 결국 보호되어야 할 국내산 소비 막고 값싼 수입산 소비 권장

5. 한우농가 건의사항

- 국내 농축산물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 소비위축, 수입산 난립 등 국내 축산농가, 농업·농촌 붕괴 초래 우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지정하여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 필요

"탄탄한 한우소비기반 대상 한우 홍보 효과 볼 것"



반갑습니다

강호경 부산·경남도지회장





경남 함안에서 강호경 부산·경남도지회장을 만났다. "올 해 쌍둥이가 2번이나 태어났어요." 라며 흔치 않은 쌍둥이 탄생 소식에 기뻤는데, 어미소가 쌍둥이 중 한마리를 돌보지 않아, 젖 먹이기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송아지를 쓰다듬는다. 강호경 지회장은 한우를 20년 넘게 사육하며 150두~160두로 유지하면서 일괄사육을 하고 있다. 비육우는 70두 정도다. 20년간 수박농사와 한우를 겸업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수박농사는 그만두고 한우만 사육하고 있다. 라이그라스를 3만평의 부지에 재배해, 조사료를 100% 자급하고 있다.

소규모농가 많은 경남 한우산업

경상남도 한우산업은 소농가가 많고, 겸업농가가 많다. 한우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업농가로 가야 하는데, 토지, 시설이 필요하고,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전업화가 어렵다. 또 농촌 고령화로 인해 규모를 계속 늘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생산비 절감 지원 필요

통계상에도 규모화된 농장에 비해 소규모 농장은 생산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에 필요한 정책은 일회성인 소모성 지원사업보다 생산기반을 다지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함안군은 경남 중에서도 조사료가 풍부한 지역이다. 게다가 농사를 포기하면서 유휴 논, 밭이 많아서 옥수수나 라이그라스를 생산하기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로부터 조사료 수입량이 많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4대강 둔치 개발로 강변에 공원이 생겨났지만, 군단위 이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공원시설은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오히려 둔치에 사료작물을 못 기르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강 둔치는 땅이 비옥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잘 자라는데, 이렇게 축산농가가 절실히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조사료 생산지원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지회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청에 여러 정책을 요구하지만 보조사업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서 정책 관철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큰 비용은 들이지 않고 농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헬퍼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한우헬퍼를 안정적으로 시행중이고, 함안군지부에서도 센터 지원사업으로 헬퍼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제 농촌에서도 여행 등 여가를 즐기며 농사를 짓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소비촉진행사 통해 한우 우수성 적극 알려야

부산·경남도지회는 우리나라 제2의 소비도시 부산과 조선소, 공장 등이 즐비한 창원, 거제, 통영 등을 인근에 두고 있어 탄탄한 소비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홍보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강호경 지회장은 경남 한우농가 대표로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한우고기의 우수한 품질을 꾸준하게 알리는 행사를 통해 한우산업이 지역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한우시식이나 홍보행사가 흔하고 특색없다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의 미각은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을 각인시킨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아주 큰 홍보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장철마한우축제에서 참여했는데, 행사기간 중 한우가 300두 이상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사나 축제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한우고기를 연중 소비해주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관광지에서 외국인 대상 한우홍보

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뿐 아니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우리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해군에서 '보물섬 마늘축제 & 한우잔치' 행사를 통해 기존 마늘 관련 축제에서 한우와 함께 축제를 개최했는데, 지역축제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한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에도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값 좋지만, 소비 위축 우려

한우가격이 좋은데, 암소감축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강 회장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소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우려를 표한다.

"한우고기를 먹는 사람 소득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비싸면 자주 못 먹게 될 것이고, 또 자주 안 먹으면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이 갈 것입니다. 한우식당이 장사가 안되고, 어려우면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한우산업에 피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요"

강호경 지회장은 2009년 광우병 사태로 많은 수입육 식당이 문 닫고, 정육점형 식당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우 소비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한우산업에 반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한우를 소비해주는 개미군단인 식당이 줄고, 가정소비도 가격 때문에 줄어든다면 우리 한우산업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소값 파동 대비하자

소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가격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소값이 좋다보면 투기자본이 모일 수 있고, 대기업 진출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늘어난 사육두수로 인해 소값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협회에서 정부와 수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축협의 생축장, 위탁사육은 조합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고, 농가 지도사업을 통해 한우농가를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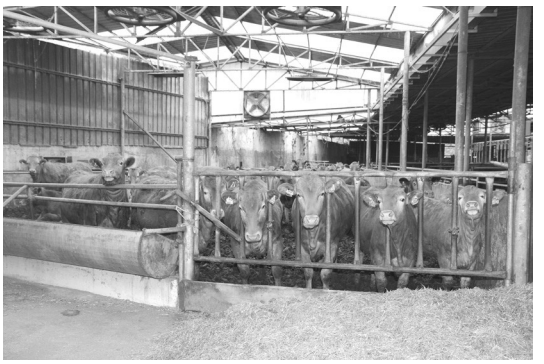
도지회는 시군지부와 중앙회를 잇는 가교역할

"도지회장을 하면서 도지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한우농가의 의견을 시군지부가 수렴하고, 도지회는 이를 중앙회에 잘 전달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도지회장으로 추대되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념으로 중간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TMR사료 생산 공장





TMR사료 자가 생산해 연간 사료생산비 40% 절감

삼솔농장 한기웅 대표

"4억 8천만원을 들여 TMR 사료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왔는데, 본전은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웅 이사는 3년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200만원을 보조받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TMR 공장을 지었다.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 가능한 물량은 1500~2000두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외부에 판매는 하지 않고 농장 세 곳에 총 400여두의 한우가 먹을 TMR 사료만 생산하고 있다.

TMR생산으로 사료비 40% 절감

TMR 사료는 농산 부산물, 식품가공 부산물 등을 원료로 사료를 생산하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보통 소를 1마리 출하할 때 380~450만원이 사료비


사료공장 내부


제조공정을 설명하는 한기웅 대표

인데, 한대표는 TMR 사료로 250만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4800~5200만원 정도의 사료비용도 2500만원으로 절감되었다. TMR 사료를 생산하면서 40% 이상의 사료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자동 투입으로 인건비 절감

TMR 사료생산을 하면서 원료 자동 투입으로 인건비도 절약했다. 기존 수동 TMR 사료 제조시에는 일일이 사료원료를 투입했지만 이제는 습식사료(비지, 버섯배지 등)만 수동으로 투입하고 알곡은 사료빈에 있다가 자동 투입되기 때문에 400두가 먹는 사료를 부부 2명의 인력으로 제조하고, 급여까지 하지만 추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매일매일 사료생산

사료는 매일매일 제조가 원칙이나 농번기에는 며칠분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번식우 160두, 특히 암소는 매일 제조·발효하여 급여하고 있다. 사료배합비율은 축산과학원 오영균 박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번식우, 육성, 전기, 중기, 후기, 암소비육 등 6가지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사료회사에서 제조한 것이라곤 이유시에 먹이는 농후사료인데, TMR 사료와 혼합해서 급여하고 있다.

오랜기간 TMR 급여 C등급 낮춰

등급출현율은 1++등급이 45%~5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부분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 A등급은 55%, 나머지는 B등급이고 C등급 출현율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통 TMR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높아서 C등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육성우 전기까지 TMR 사료를 먹이다가 후기에 가서 농후사료로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나 TMR과 농후사료를 섞여 먹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철저하게 계산된 배합비, 그리고 오랜기간 TMR 급여 경험으로


라이그라스를 생산중인 초지


빈 별로 사료원료가 들어있다.

C 등급을 낮출 수 있었다.

사료는 단계별로 가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혼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육성우 전기에는 에너지가 낮게 후기에는 올려주되 TDN 79~80.5 정도로 맞추는데 현재 후기 기준 80으로 맞추었다.

TMR 사료에 광물질이나 생균제는 넣지 않고 대신 망간, 구리, 아연과 EM을 첨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망간, 아연을 첨가해 등급을 높이는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국내산 원료 확보에 주력

한 대표는 사료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인 현실이지만 직접 생산하는 사료에 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료 자체 생산 뿐 아니라 사료에 들어가는 천일염은 태안에서 간수까지 뺀 것을 직접 구해오고 깻묵, 콩비지도 국내산 원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국산 원료가 2배 이상 비싼 것도 있지만 국내산을 고집하고 없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수입산을 사용한다.

낮은 생산비, 짧은 사육기간
우수한 송아지 형질로 농장 수익성 높아

"모든 농장이 그렇겠지만 한우경영이 쉬운 일이 아니다. 번식이 60%, 비육이 30%이다 보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인해 우리 농장의 100두는 일반농가의 250두의 소득을 내준다. 출하월령도 28.8개월로 사육기간이 짧다. 지육 450kg이상, 1++등급 출현율 50%이상으로 송아지 판매에 어려움이 없다"는 한 대표. 게다가 지난해에는 1년에 쌍둥이 송아지를 10쌍이나 낳는 등 유독 쌍둥이 생산이 높다고.

소값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큰 소 한 마리에 700만원 이하로 소를 팔아본 적이 없었다. 김해에서 송아지를 250두를 사가기도 했고, 암소시세가 180만원 할 때에도 320만원에 송아지를 팔았다.

한 대표는 우시장을 통해 송아지 경매에 좋은 송아지를 내다 파려니 자존심이 상해서 낼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소는 겉보기만 가지고 가격을 판단해서는 안되는데, 우리 소의 내재된 능력은 뒷전으로 번지르르한 송아지의 겉모습에 팔려가는 우시장이 싫었다고 한다. 유전능력, 형매등을 감안해 송아지의 진면목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다.

기술은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야

한기웅 대표의 사료공장에는 견학도 많이 오기도 한다. 많은 농장주들이 올 때마다 "한 사장이 진짜 사용하는 배합비를 주시오"라는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다. 항상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공하는 한우산업이 되자는데 변함이 없다. 하지만 배합비를 공개해도 잘 믿지 않기도 하는데, 같은 배합비를 가지고 가서 자기농장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그만큼 소를 잘 관찰해서 섭취율이 떨어지면 비타민이나 광물질 함량을 높이는 등 주인이 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우리 농장에는 소 관찰을 열심히 해서 사료가 남거나 하면 그 우사는 집중 관찰 대상으로 원인을 찾고 대처를 하고 있다.

〈표〉 TMR 배합비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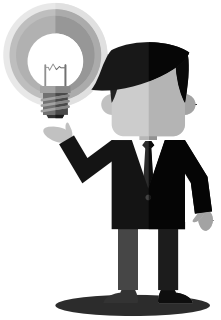
	번식우	육성우	전기	중기	후기
원료	2톤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단백피	85kg	10.70%	8.80%	10.60%	4.90%
당밀		3.40%	3.60%	4.10%	4%
보리			2.60%	8.80%	13.80%
루핀				2톤-50kg 4톤-100kg	2톤-50kg 4톤-100kg
소맥피	85kg	6.40%	3.40%		
옥수수 후레이크	85kg	5.60%	12.90%	23.90%	43.20%
버섯배지	85kg	4.00%	8.60%	8.90%	3.90%
비지	85kg	14.60%	10.30%	13.30%	13.80%
미강	143kg	5.90%	5.30%	8.90%	8.80%
깻묵	10kg	2.40%	2.60%	4.50%	2.90%
조사료		30.40%	33.30%	12%	
볏짚	1000kg	11.20%	8%	12%	11.20%
알팔파		8.00%	3.40%		
조사료	410kg				
비타민	2.4kg	0.20%	0.09%	0.09%	0.15%
석회석	18.61kg	0.51%	0.40%	0.89%	0.82%
소금	3.4kg	0.20%	0.21%	0.27%	0.30%
중조				0.36%	0.50%
TDN	58.55%	68.90%	71.35%	74.75%	79.88%
CP	8.63%	16.20%	15.44%	15.22%	12.94%
칼슘	0.69%	0.70%	0.60%	0.60%	0.50%
인	0.43%	0.50%	0.46%	0.50%	0.51%

TMR사료 원재료 꼼꼼히 챙겨야

TMR 사료는 다 좋은데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원료 수급상황에 따라 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구매선을 알아봐야 하고, 많은 거래처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5월에 조사료 수확기간에는 사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도 바쁠 때는 2시간 밖에 못잘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정된 돈으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한 대표.

24살 때 한우 한 두 마리로 시작한 한우농장을 지금 400두의 수익성 좋은 농장으로 일궈놓기까지 '소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처럼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간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지난 3년의 결실이 앞으로도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한우의 효율적인 번식관리 방안

바이오컨설팅&신동물병원 수의학박사 **송준익**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지속적인 한우사육농가의 감소와(2016년 3월 현재 87,573호) 사육두수감소(2,596,000두) 특히 가임암소의 감소로(1,073,000두) 번식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번식의 개미군단인 중소규모농가(호당 20두 미만) 감소는 심각한 한우 사육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우번식은 대량으로 이루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비육과 번식을 동시에 이루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번식에 적합지 않는 과비와 지방괴사, 생식기 주변의 과잉 지방축적 등으로 생식기 질환 이외의 요인으로 번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번식에 적합한 사양관리와 번식관리를 철저히 하면 원하는 번식성적을 올릴 수 있다. 번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우 농가에 적합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번식관리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다. 잘 알다시피 한우번식농가는 송아지를 분만 해야만 높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번식문제 해결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의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한우 농가에게 번식은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며, 육종개량이 아무리 잘된 한우라 할지라도 번식능력이 저하된다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도태에 이르게 된다.

한우의 임신기간인 280일을 기준으로 분만 후 85일 이전에 수태된다면(공태기간), 일 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얻는 결과가 된다.(1년 365일-소임신기간 280일=85일)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일정 주기를 정해서(1-3개월 단위) 번식 검진을 실시한다면 번식 관리에 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번식관리에 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번식 캘린더 활용

번식의 시작은 발정 발견인데 이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식 캘린더(표 1)활용은 한우의 발정주

기가 평균 21일이기 때문에 21일 간격으로 일자를 배열했기 때문에 발정(수정)일에 소 번호를 기입하고 다음 발정 예정일에 아침, 저녁 사료 급여시, 사료섭취량, 외음부 종창, 승가 행동 등 발정시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하고 수정유무를 결정 한다. 이렇게 1주기, 2-3주기 확인을 반복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2주기 전후(40일)에 수의사의 임신진단을 실시하면 확실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발정관찰의 집중력이 증가하고 (모든 소를 관찰대상으로 하지 않음) 발정 발견율과 수정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1) 번식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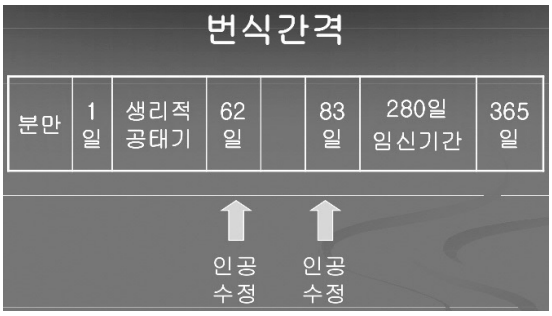
★ 번식캘린더 ★					■ 발정(수정)일 ■ 분만예정일 ○ 임 신				
6/1 17년 3/9	(예) 1번수정일	6/22 3/30	1번 1차 재발정 예정일	7/13 4/21	1번 2차 재발정 예정	8/3 5/12	1번 3차 재발정 예정일	8/24 6/1	
2 10		23 4/1		14 22		4 13		25 2	
3 11		24 2		15 23		5 14		26 3	
4 12		25 3		16 24		6 15		27 4	
5 13		26 4		17 25		7 16		28 5	
6 14		27 5		18 26		8 17		29 6	
7 15		28 6		19 27		9 18		30 7	
8 16		29 7		20 28		10 19		31 8	
9 17		30 8		21 29		11 20		9/1 9	
10 18		7/1 9		22 30		12 21		2 10	
11 19		2 10		23 5/1		13 22		3 11	
12 20		3 11		24 2		14 23		4 12	
13 21		4 12		25 3		15 24		5 13	
14 22		5 13		26 4		16 25		6 14	
15 23		6 14		27 5		17 26		7 15	
16 24		7 15		28 6		18 27		8 16	
17 25		8 16		29 7		19 28		9 17	
18 26		9 17		30 8		20 29		10 18	
19 27		10 18		31 9		21 30		11 19	
20 28		11 19		8/1 10		22 31		12 20	

2.수정율 향상 방안

분만 후 초회 발정 일수를 45일 전후로 본다면 적어도 60일부터 85일 이전에 2회의 수정기회를 갖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수정실시율).(표 2) 소는 수정을 실시해야만 수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기회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소의 발정은 주로 밤12시부터 새벽4시경에 발현되기 때문에 아침 사료 급여시 관찰이 중요하다(발정 발견율).

분만 전 급여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서 분만 후 난소의 영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신 말기의 부실한 관리는 분만 후 발정지연과 배란지연, 낭종의 다발로 번식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

(표2) 번식간격



3.수태율 향상 방안

분만 전 비타민A.D.E 제제, 셀레늄, 미네랄, 비타민제를 2-3주 간격으로 공급(주사)하여서 전반적인 난소기능 활성화를 시도하고 분만 후에 자궁염 예방을 위해 자궁약액주입(보러스)을 2-3회 하여 줄 필요도 있다.

4.번식관리 목표치

상기목표치(1년 1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빠지지 않고 실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인 기록은 분만일, 수정일 ,정액번호가 필수 사항이다.

번식의 기본계산은 분만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분만 후 초회 발정일수, 초회 수정일수, 임신됐다면 공태일수(번식간격)가 산출되며 의 경영상황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정일은 수정 후 재발정일과 임신감정일수 등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액에 따라 수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액번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표 3)은 각 항목별 번식관리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으니 목표치와 농장의 성적이 부합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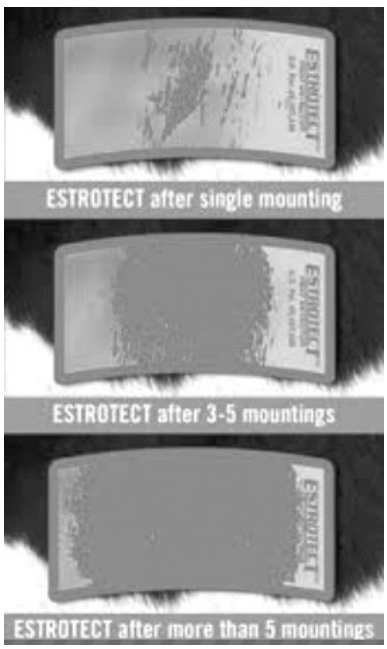
5. 발정발견 보조 기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정 발견은 번식의 시작인데 일선농장에서 발정 발견하는 것은

(표3) 번식관리 목표치

항목	목표치	항목	목표치
초회수정월령	14~16개월	분만간격	365~395일
초산월령	23~26개월	번식장애 발생율	8%이하
분만후 초회발정	45일 이내	유산율	5%이하
분만후 초회수정일	60~70일	난산율	10%이하
3회 수정까지 수태율	90%	태반정체율	8%이하
수태당 수정회수	1.7~2.2회	자궁내막염율	10%이하
분만후 수태일수(공태기간)	85~115일(110일)	난소낭종율	10%이하
분만60일 발정율	80%	번식장애도태율	6%이하

이론처럼 쉬운일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발정 발견을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목걸이 혹은 발걸이 부착 보수계 (모니터에 표시), ESTROTECT(소 승가시 은색이 빨간색으로 나타남;사진참조), 페인트 마카(소 승가시 페인트가 지워짐)등을 활용 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6. 호르몬제를 이용한 번식관리

최근에는 내분비계의 많은 연구로 황체 혹은 난포 발육과 퇴행, 배란에 관여하는 성 호르몬제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PGF_{2}\alpha$, GnRH, HCG, PMSG,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CIDR, PRID등을 사용하여 발정 동기화, 배란 동기화 유도하여 정시 인공수정 기법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전문수의사와 상의 하여 농장에 적용해야 된다.

7. 초음파기를 이용한 번식 검진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번식관리 방법으로 영상기기를 통한 시각적 진단과 현장에서 확진할 수가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다.

8. 번식 검진

일정 주기(1-3개월 단위)로 분만우와 수정우 혹은 무발정우에 대한 수의사의 검진을 실시하여 수정율, 수태율 및 임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1차 검진

- 분만일(0일)부터 30일 전후에 생식기관을 검사하여 난소, 자궁 소견이 정상일때는 50-60일에 발정발견 수정을 실시하고 비정상 난소, 자궁(낭종, 위축, 축농증 내막염) 소견일 경우 치료

2차 검진

- 수정 후 32일부터 임신감정을 실시하고 임신일 경우 3차검진 실시하고 공태일 경우 난소, 자궁검사 실시하여 정상일 경우 발정유도 혹은 발정발견 수정토록하고 비정상 난소, 자궁일 경우(낭종, 위축, 축농증, 내막염) 재치료

3차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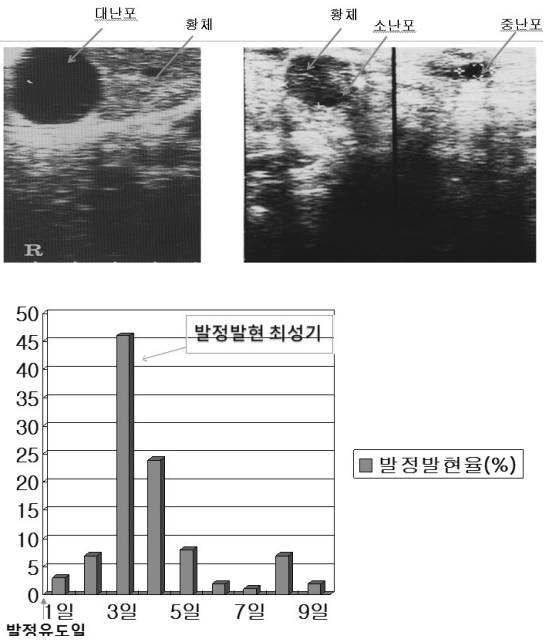
- 필요시 실시(예: 임신우가 발정 행동시, 유산태아 발견시)

9. 발정 유도 및 치료

PGF2α에 의한 발정유도는 난포파의 단계(stage)에 따라서 발정발현이 2~7일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나, 우리 병원에서는 수정을 PGF2α투여후 3~4일째 2회 인공수정을 권장하고 있다.

PGF2α투여 후 발정발현 시기

PGF2a 유도대상(O) PGF2a 유도대상(X)



10. 정시인공수정기법

수태율은 진정한 의미의 농장의 번식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표4 참조)

임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정해서(수정율) 수태가 몇 두 되었는지가(수태율) 중요하다. 수정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연 발정을 비롯한 인위적인 발정 유

도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발정유도 후 수정을 정해진 시간에 발정 발견 없이 수정하는 기법을 정시인공수정기법이라 말한다.

(표 4) 수정율에 따른 임신율 차이

수정대상두수	수정율(%)	수태율(%)	임신율(%)
100	50	50	25
100	80	50	40
100	100	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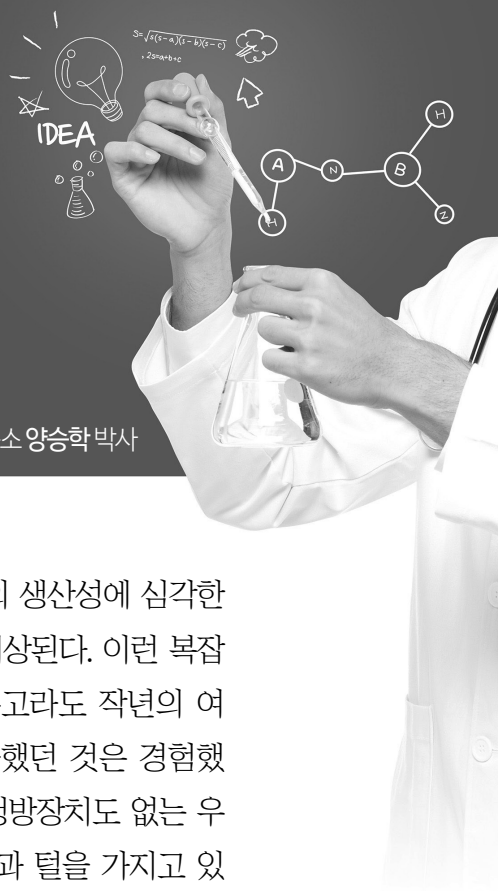
수정율 : 수정한 두수 / 수정대상두수 X 100
수태율 : 수태두수 / 수정두수 X 100
임신율 : 임신두수 / 수정대상두수 X 100

11. 결론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 했으나 궁극적으로 번식관리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록만 꼼꼼히 해도 관리가 잘되게 되어있다. 기록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기록을 잘하는 농가를 보면 번식간격이 줄고, 임신율이 증가하며 생산성향상과 더불어 소득 향상과 여유로운 농장 경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한우 번식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관리야 말로 농장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 뜻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란다.



한우도 더위를 탄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양승학** 박사

I. 시작글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이상기상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요즘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피해로만 끝나지 않고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기후변화 국제보고서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에 있어 이에 시급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2050년 한반도에 폭염일수가 26일 발생되고 열대야현상도 30일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실제로 매년 이상고온에 의해 가축의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시적인 피해로는 젖소의 유량감소, 닭이나 돼지의 집단폐사를 들 수 있다. 더욱이 눈에 안보이는 영향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데 이는 열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변화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가축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작년의 여름이 매우 후덥지근했던 것은 경험했을 것이다. 솔직히 냉방장치도 없는 우사에서 두꺼운 가죽과 털을 가지고 있는 한우는 더위에 취약하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더위에 약한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적어볼까 한다.

II. 본론

1. 더위의 기준

가축의 사육조건에 있어 모든 가축은 살아가기에 쾌적한 온도, 즉 적정온도로 사육환경을 표현하는데 사육단계와 관계있으며 먹는 사료에 따라 적정온도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송

아지는 13~25도, 육성우 및 번식우는 4~20도, 비육단계에서는 10~20도로 송아지단계를 제외하면 20도 이하에서 사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최고기온(평년값)이 18도에 육박하여 날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한우는 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임계온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정온도를 벗어나 체온유지를 위한 대사활동이 변하는 최고, 최저의 한계온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신체 특성상 추위에 비해 더위에 약한 한우의 최고 임계온도는 30도인데, 바깥기온이 이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기 위한 작용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더위를 나타낼 때 불쾌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이 계산방식을 가축에 적용한 것이 일명 온습도지수(Temperature Humidity Index)라는 것이다. 온습도지수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축종별・사육단계별로 수행되고 있다. 온도와 습도를 조합하여 계산한 수치를 이용하며 더위의 정도와 영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가축 불쾌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 더위의 영향

최근 몇 년 중 작년이 보다 더웠는데 이상기후보고서('15)에 의하면 가금류가 2,532천수, 돼지는 5,219두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년에 비해 가금류는 2.5배, 돼지는 28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더위의 영향은 돼지와 닭・오리뿐만 아니라 우유생산량 및 품질의 감소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젖소에게서 나타나는 데에 반해, 한우는 다년간 사육 후 출하 등의 특징때문에 폐사가 되지 않는 한 피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한우의 경우 현재로서는 폐사에 이르지 않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한우는 기온이 26도 이상 올라가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체내 에너지가 열을 식히는 데에 사용되므로 체중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량이 증가되며 심



장박동이 빨라지고 활동량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말하는 열사병과 같은 증세가 발생되며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하절기가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헐떡거림(열성 과호흡) 증세인데, 이상고온현상이 길어지면 이런 신체의 적응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되기 쉽다. 또한 하절기 번식우에 있어 발정발견이 힘들며 수정이 되더라도 배사멸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더위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수정을 실시하거나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우에 있어서 더위의 영향은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증체량 저하, 그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3. 더위 대책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도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몸의 구성성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임을 상기하여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수조관리에 힘쓸 것을 권장한다. 수조의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수조자체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으면 시원한 물의 공급이 어렵다. 더위를 탈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물이므로 수조몸체가 뜨겁게 달궈지지 않도록 하고 수조의 물 온도를 24도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뜨거운 수조에 덴 경험이 있는 소들은 더워도 잘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름철 우사는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데, 이는 분뇨에 의해 질척거리고 더위를 식혀주려 물을 뿌렸거나 비가 들이쳐서 발생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우사바닥은 마를 새가 없으므로 바닥재를 자주 갈아주어야 하며 지붕개폐식 우사의 경우 지붕을 열어 자주 말려주는 것이 좋다. 여기서 바닥건조와 우사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암모니아가스를 날려버릴 팬의 기능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스마트기능도 포함된 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기화열을 이용하여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물론 우사온도에 따라 풍속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어 수동으로

한우에 있어서 더위의 영향은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증체량 저하, 그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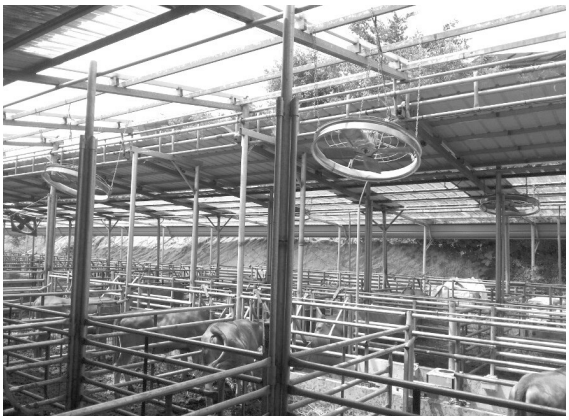


그림 1. 송풍팬 설치 모습



그림 2. 지붕개폐식 우사의 바닥건조 모습

조절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사환경에 맞는 환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혈액순환이 소화작용보다 체온조절작용에 맞춰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영양섭취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반추위 소화(발효)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추위 발효에 이상이 생기면 반추위내 온도가 올라가고 엔도톡신같은 독소가 생겨 간장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므로 식욕이 저하되거나 변이 묽어지며 침을 흘릴 경우 반추위 발효개선제나 제오라이트 같은 흡착제 등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비육중기가 마블링의 축적에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한여름에 이 시기가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경영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맺음말

이상 한우와 더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지구온난화는 둘째치고라도 기본적인 하절기 사양관리는 항상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한우가 말을 못할 뿐 더위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한우의 이상행동을 짚어내고 바로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설적인 면을 한 번에 바꾸긴 힘들기 때문에 본인 우사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도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라도 미리 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보았다.

콕시듐 만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삼양애니팜 **김성년** 부장

요즘 한우사육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송아지 설사다. 송아지 설사는 더 강한 항생제를 쓰고 더 좋은 사육시설에서 기르는데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바이러스성 설사나 세균성 설사 외에 콕시듐에 의한 설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1. 콕시듐 만연화 원인

잦은 항생제 사용

한우 송아지 사육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송아지 설사를 겪는다. 로타나 코로나바이러스성 설사, 아니면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타나는 대장균증 등은 송아지 사육장에서 상존하는 설사병들이다.

일단 설사가 발생하면 항생제부터 주사한다. 이 항생제가 안 들으면 다른 항생제를 쓴다. 그러면서 송아지의 장(腸)은 엉망이 되어간다. 腸이 엉망이 되어간다는 것은 송아지 장내 미생물총의 유익미생물이 감소하고 유해미생물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정상적인 송아지는 어미로부터 분만 시 건강한 장내미생물총을 받아 웬만한 병원성 콕시듐 원충이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항생제로 엉망이 된 장내미생물총을 가진 송아지는 소량의 병원성 콕시듐 원충만 들어와도 금방 설사하게 된다.

보통 항생제 투여 종료 후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빨리 증식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유익균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된다. 이런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는 콕시듐을 비롯한 원충류의 증식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 때 유입된 병원성 콕시듐 원충들은 장점막에 부착하여 급속히 증식하는데, 한 개의 콕시듐 충란이 최대 2천3백만개까지 증식할 수 있다.

지속적인 콕시듐 충란 배설과 오염

콕시듐 충란은 감염된 송아지 뿐만 아니라 이미 회복된 성우나 늙은 소도 보균우로 작

용한다. 따라서 콕시듐이 만연한 사육장은 지속적인 콕시듐 충란의 오염원이 된다.

콕시듐은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므로 습하고 따뜻한 사육장은 지속적인 콕시듐 원충의 감염 장소가 된다. 밀집사육을 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드롯에서 밀집사육하는 북미에서도 콕시듐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단 외부로 배출된 충란은 이중의 벽을 가진 강력한 보호막을 가지므로 어지간한 소독제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콕시듐 원충은 주로 대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부분 약한 임상증상을 나타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성이나 중증의 콕시듐증의 경우에 송아지는 심한 설사, 탈수, 혈변, 체중감소를 나타내다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경형 콕시듐증도 보고되고 있다. 설사와 동시에 횡와 및 후궁반장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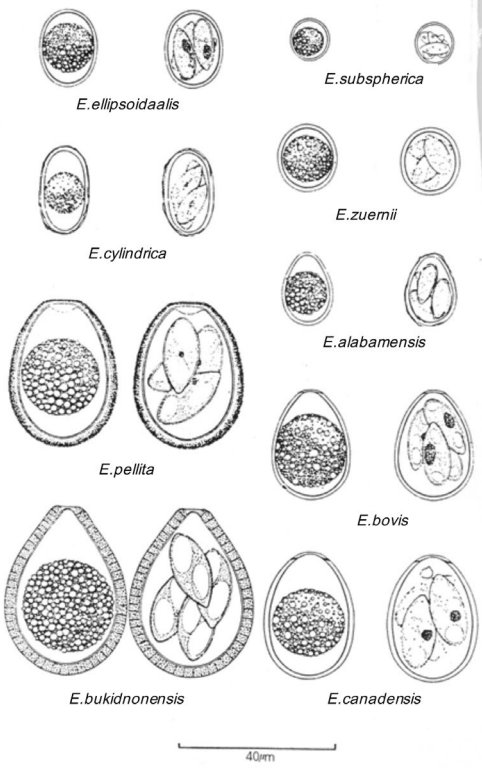
2.간략하게 콕시듐 알아보기

콕시듐은 습한 곳을 좋아한다

사육장이 습해지면 콕시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및 여름철 콕시듐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가 콕시듐 증식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연중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콕시듐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에서 발견되는 콕시듐 원충(Eimeria spp)은 12가지이며, 그 중 3가지(E zuernii, E bovis, and E auburnensis)가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E zuernii, E bovis가 주로 문제가 되고 병원성도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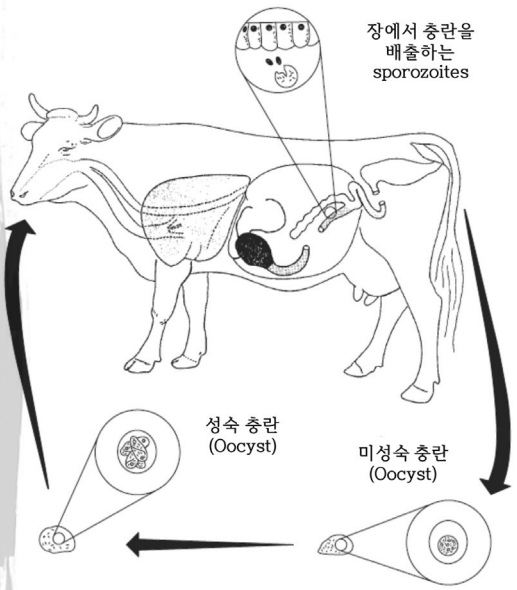


〈그림1〉 소에서 발견되는 콕시듐 충란들

콕시듐의 생활사는?

하나의 콕시듐 충란이 장내에 유입되면 숙주의 체내에서 트립신과 담즙의 자극에 의해서 충란(Oocyst)이 탈낭되어 8개의 스포로조이트(Sporozoit)가 유리된다. 유리된 스포로조이트는 장의 점막상피세포내로 빠르게 침입하는데 이 과정은 수초 이내에 마치게 된다. 침입한 스포로조이트는 구상체(Schizont)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낭충(Merozoit)으로 분열한다. 이후 숙주의 상피세포가 파열되면서 수많은 낭충이 유리되고, 유리된 낭충은 다시 점막상피세포로 침입하여 구상체를 형성함으로써 무성생식을 반복한다. 무성생식이 끝나면 유성생식을 거치면서 충란을 배출한다.

보통 19~21일후 하나의 콕시듐 충란이 Life-cycle을 거치면서 수십~수백만개의 충란으로 증식된다.



〈그림2〉 소 콕시듐의 생활사

콕시듐증 증상은?

소에서 콕시듐증은 주로 3주~6개월령의 송아지에 주로 나타난다.

잠복기는 16~30일이며 악취가 나는 설사가 특징이다.

임상증상은 유입된 콕시듐 원충의 양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콕시듐 충란이 많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가벼운 설사만 나타난다. 하지만 많은 양이 유입되면 송아지는 심한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며, 장점막상피세포의 탈락으로 출혈변도 나타난다. 탈수증상이 보이고 체중감소와 폐사까지 이어진다.

식욕도 감퇴되며 미열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부위 설사 및 점상상피세포 손상으로 인해 이급후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3〉 송아지의 콕시듐 설사

3.콕시듐 컨트롤하기

콕시듐증의 치료

주사제로서 sulfadimethoxine (50mg/kg 3~7일간) 또는 sulfamonomethoxine (50mg/kg 3~7일간) 등이 효과가 있다.

경구제로서는 sulamethazine (140mg/kg 3일간), sulfaquinoxaline (13mg/kg), amprolium 등이 사용되었다.

암프롤리움(amprolium)은 소 체중 1kg당 5mg의 비율로 사료 또는 음수에 타서 21일간 계속 급여하면 예방 및 치료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이들 설파제와 암프롤리움제제는 콕시듐 생활사중 무성생식기에 효과를 나타내지만 유성생식기 및 충란(Oocyst)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최근 사용되고 있는 톨트라주릴(Toltrazuril)제제는 콕시듐 원충의 모든 발육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5% 현탁액 1일 사용으로 14일간 원충의 배설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콕시듐증의 예방

송아지 도입시 톨트라주릴제제의 예방적 투여가 콕시듐증 발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 생균제(Probiotics)를 콕시듐증 예상발병시기(농장마다 콕시듐증 발병시기가 다르므로 농장에서 가장 빨리 발생하는 시기로 잡는 게 좋다) 2주전부터 2주간 투여함으로써 콕시듐증의 발생을 상당부분 억제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생균제는 장상피세포내 임파구를 자극하여 cytokine(γ-IFN 및 IL-2)을 증가시켜 충란의 배출을 억제한다. 아울러 유익균을 증가시킴으로써 장내미생물총을 정상화하여 병원성 콕시듐 원충의 증식을 억제한다.

사육장 위생

콕시듐이 발병한 사육장은 3% 크레졸계 용액이나 2% 가성소다용액으로 소독한다. 사육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가급적 "all-in, all-out"을 실시한다.

〈참고문헌〉

1. Hany Elsheikha. July 7, 2008. Coccidiosis and cryptosporidiosis. Vet times.
2. Murray J. Kennedy. July 2007. Coccidiosis in cattle. Agri-Facts, Food Safety Division Alberta Agriculture and Food, Canada
3. Peter D. Constable. 2015. Coccidiosis in cattle. The Merck Veterinary Manual
4. John Maas. 2007. Coccidiosis in cattle. California Cattlemen's Magazine
5. Marie-Agn`es Travers, Isabelle Florent, Linda Kohl, and Philippe Grellier. 2011. Probiotics for the Control of Parasites: An Overview. Journal of Parasitology Research Volume 2011, Article ID 610769, 11 pages
6. 이재구. 1999. 최신수의기생충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7. 류일선. 2007. 대한수의사회지 4월호
8. 정우석. 송아지 콕시듐성 설사병. 축종별 가축질병, 농림축산검역본부 website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협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가축소유자, 가축소유자의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공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입국시 소독 등 검역관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 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의무화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소유자 및 동거가족
○ 축산농가 고용자 및 동거가족
○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판매자, 사료판매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의 종사자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방법

〈출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란 이용
② 출국장 내 설치되어 있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
③ 출국장 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민원실)방문

〈입국〉 : 입국 즉시 입국장 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사무실) 방문

※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준수사항

○ 해외여행 전 : 가축전염병발생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해외여행중
-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 또는 동물(사체)이나 동물분변과의 접촉을 자제합니다.
- 여행지에서는 열처리된 육류를 섭취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합니다.
- 귀국 전 짐을 챙길때에는 개인소지품(의류·신발·카메라 등)에서 흙이나 먼지 등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 해외여행 후
- 입국장 내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교육·소독 등)을 받습니다.
- 해외여행 중 사용한 개인소지품(의류·신발·카메라 등)은 바로 세척하고 개인위생(목욕·머리감기·손톱밑과 비강세척 등)에 철저를 기합니다.
-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합니다.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질병	대륙	국가명
구제역 (76개국)	아시아 (35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홍콩
	아프리카 (39개국)	가나,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유럽 (1개국)	러시아
	아메리카 (1개국)	베네수엘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2개국)	아시아 (18개국)	대만,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터키, 팔레스타인, 홍콩
	아프리카 (8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유럽 (4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아메리카 (2개국)	멕시코, 미국

※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2016.4.28 기준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안내전화

공항만	전화번호	공항만	전화번호
인천공항	032-740-2660	김해공항	051-971-4991
김포공항	02-2664-0601	무안공항	061-453-8890
대구공항	053-982-5096	제주공항	064-746-0761
인천항 1청사	032-891-3245	부산항	051-600-6261
인천항 2청사	032-772-0147	※기타공항·항만 : 1588-9060	

막상 당하면 힘들어지는 교통사고!

알면 유리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고처리가 이만저만 골치 아프다. 그저 마음 편히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해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머리는 안 아프지만 자신도 모르게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반대로 일명 나이롱환자라고 하여 꾀병을 피우는 것도 절대 안될 일이다. 철저한 교육과 풍부한 노하우로 중무장한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제대로 합의하고 치료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먼저 합의금액 제시는 좋지 않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본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무 것도 모르고 요구금액을 적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 합의금액 먼저 말하지 말고 치료부터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받도록 하자.

2. 보험회사 지정병원은 가지 말자.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도록 하자.

3. 보험회사에 당당해지자.

보험회사는 대기업이며,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며, 약하지만 쩔쩔맬수록 손해보는 것이며 당당할수록 손해를 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어 합의금액 산정 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쓰는 거짓말 알아두기

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 배불려 주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므로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당신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

= 위의 말은 보험사 직원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한 말이며,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치료를 열심히 받을수록 합의금도 높이 책정된다.

② **"일단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 치료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시 병원비는 바로 받은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완치 후에 퇴원하도록 하자.

③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이며, 추가진단도 인정된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는다.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

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④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법적으로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한다. 이것이 "특인"이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 시 먼저 제시하는 것은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보상규정 또는 약관은 기준일 뿐이므로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 20%를 제외한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이다. 특인제도는 예상판결액의 80% 가량을 지급함으로써 일찍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7. 치료는 잘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보상만 요구한다면 보험회사는 꾀병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치료를 잘받고 있으면 합의를 빨리해야 회사차원에서 이득이므로 합의금이 높게 책정된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된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했을 때에는?

해당직원의 상부를 바꾸라고 하던가, 회사 감사실(민원실)에 전화를 한다. 그래도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한우자조금 뉴스

서울 명소에서 열리는 'Korea 우호(牛好) 페스티벌'에 참가하세요~

중국인 관광객 대상 우호 페스티벌 진행
외국인들에게 한우를 홍보, 신시장 개척 및 수요 확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한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orea 우호(牛好) 페스티벌'을 서울 명소 4군데에서 5월 29일(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앱 마케팅 전문업체 펑타이가 분석한 '한국 방문 유커가 가장 많이 검색한 한국 명소 BEST 5' 중 남산 서울타워와 명동, 북촌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4군데에서 열린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2팀으로 구성하여 지난 16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행사장 주변 관광지와 한우 맛집 등 한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우호(牛好)로드 리플렛'을 배포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쉽게 한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통역도우미와 함께 ▲한우 룰렛 이벤트 ▲SNS 한우 홍보 메시지 및 영상 업로드 캠페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한우 육포, 수첩, 부채, 핸드크림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우자조금에서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한우 홍보를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수요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와 친해지고 싶은 2030 신촌으로 모여라!"

한우자조금, 5월 20일(금)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한友(우) 페스티벌' 진행
한우 로데오 게임, 한우 요리 시연 및 시식,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 체험 가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미래 소비층인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우와의 친근감 형성을 위해 '신촌 한友(우) 페스티벌'을 5월 20일(금) 낮 12부터 오후 8시까지 신촌 연세로 유플렉스 광장에서 개최한다.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한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시 전시와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체험형 이벤트 중 상설이벤트로는 ▲한우 로데오 게임(12시~6시30분까지, 매시 정각부터 30분간 진행) ▲캐리커쳐(12시~7시까지, 매시 10분부터 30분간 진행) ▲석고마임 퍼포먼스(12시부터 7시까지, 매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가 총 7회 운영된다.

무대이벤트에는 ▲한우 다트 게임(12시부터 7시까지, 매시 30분부터 정각까지 30분간 진행) ▲한우 요리 시연 및 시식(오후2시, 6시 / 30분간 총 2회 진행) ▲대학가 유명 버스킹 팀의 미니콘서트(오후1시, 7시 / 60분간 총 2회 진행)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있다.

이벤트를 참가이벤트 참가자에게 경품(한우 육포, 컬투쇼 공개방송 티켓, 수첩 등)이 증정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이번 2030 대상 이벤트는 젊은 고객층과의 친근감 형성 및 한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2030 세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농가 회원화 추진 계획

9만 한우농가가 한가족이 됩시다!

우리 한우농가의 꿈은 한우산업의 소득이 안정되고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한우산업을 돌이켜보면 수입 개방화 극복, 생우수입 차단, 소값 폭락, 원산지 표시 법제화, 자조금거출, FTA대응,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 수많은 난관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최근의 주요 활동은

1. 김영란법 금품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요청
2.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감면
3. 대기업 축산진출 금지
4. 농협 사료값 인하
5. 민간 배합사료회사 가격 담합 대응
6. 출하예약제 개선과 부산물 제값 받기
7. FMD의 SOP 축종별 구분 시행
8. 자가소비용 TMR 제조시설전기 농사용 전환
9. 부루셀라 검사 유효기간 연장요청
10. 수입조사료의 쿼터 배정 기준 마련
11.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12. 마블링 언론 편파보도 대응
13. 저능력우 도태등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통한 적정가격 유지
14. 관세 제로화 시대 대비 지속적인 한우산업 정책 대안 수립
15. 한우산업발전간담회
16. 직거래 유통망구축을 위한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한우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농가 회원화등을 추진하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한편 앞으로도 우리한우가 가야 할 길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파고이상으로 산적한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9만 농가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며 이런힘을 바탕으로 한우농가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수입산 가격과 품질경쟁 극복을 위한 각종정책의 뒷받침, 대기업 축산진입방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군의 한우농가들이 강해져야 하고, 맛 못지않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른 식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한우농가들 각자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9만농가들이 혼연일체가 될 때 가능한 일이며 그 중심에 농가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로 구심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그간 많은 업적도 쌓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과제들도 농가 권익 차원에서 활동하는 전국한우협회만이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농가 모두가 협회 회원이 되어 우리의 꿈을 펼쳐 나갑시다. 전국한우협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우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거출코자 하오니 이에 동참하여 주시고 3천원의 회비는 지역 한우협회의 활동비와 정책활동에 사용하여 미래의 한우산업이 안정화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 하겠습니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폰) :

2016. . .

전국한우협회 귀하

HANWOO N·E·W·S

2016 May

업계소식

(주)동진BLS
스텐레스 대인소독기(2종) 신제품 출시

(주)동진BLS(대표이사 김상중)는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아이템인 대인방역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출시, 판매한다.

최근 농장의 차단방역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있으며, 그 중 농장 출입자의 소독도 차량소독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이번에 출시한 대인소독기는 내구성을 더욱 높인 스텐레스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자외선살균 및 고압 분무소독, 오존살균, 손소독, 신발소독의 기능을 갖춘 기본형과 기본소독기능에 측면(6구형) 에어샤워 기능을 추가한 에어형 2모델을 출시하였다.

특히, 에어형 대인소독기는 기존의 에어샤워가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나와 소독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겨울철에는 온풍이 나오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출입자 소독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방명록기록대 및 물품보관대 장착과 칼라유리 채택으로 외관도 미려하다.

현장에서의 내구성이 우수한 스텐레스 본체와 사용 중 고장을 줄이기 위해 컨트롤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장 시 농가에서 간단히 수리 또는 정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의 크기는 1,300(1,400)×1,200×2,320(㎜)이며, 겨울철 동결방지를 위해 화재예방의 기능을 갖춘 고급형의 라디에이터를 기본 제공한다.

동사는 대인소독기 구매를 고민중인 농가를 위해 필수 소독기능을 장착한 저비용의 제품부터 스텐레스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중이다.



대인방역기(기본형)

그리고 출입자와 차량을 동시에 소독할 수 있는 다목적방역기를 비롯하여 차량소독기, 안개분무시스템과 방역장비 및 방역소모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경제적이면서도 기능과 성능에 충실한 제품생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인방역기(에어형)

○ 문의 :
(031)765-6245 마케팅부



다목적방역기

우성사료
비육우 신제품 진한우마루, 마블진 출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한우사업의 생산성과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품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내놓았다. 신제품 "진한우마루·마블진" 비육우 사료와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우성의 한우사료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일본 수의생명과학대, 오비히로축산대에 이어 새롭게 네덜란드 사료연구소 SFR(Schothorst Feed Research)과 함께 연구·개발한 '진 시리즈'는 비육우의 산육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육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CP, TDN 등의 영양소 평가방식에서 SFR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VEVI(비육우에너지), TMP(진정대사 단백질) 등의 세분화된 영양소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비육 기술의 접목을 끌어냈다.

또한 BST(반추위 우회전분), GN(당생성영양소), LN(지방생성영양소), 진정대사AA(아미노산)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료효율과 에너지·단백질 이용효율을 보다 극대화하였다.

지난해 출시 이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고급육 전용 육성우 제품인 '맥스큐 육성' 급여 이후 28개월 출하 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영양설계 되었으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반추위 환경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안정화된 반추위에서 사료섭취량의 극대화와 그에 따른 육량증대, 육질개선을 끌어내도록 설계했다.

반추위 환경의 안정을 위해 PSW(반추위 안정화 지수)개념을 도입, 에너지와 단백질의 원료별 소화속도를 고려한 원료기용으로 장기비육의 대표적인 걸림돌인 과산증을 최소화하고 반추위 내 VFA(휘발성지방산) 생성을 조절하여 반추위 환경개선을 유도한 것도 큰 장점이다.

진한우마루에는 비육 4단계 전구간 고단백 ·고에너지 원료인 루핀후레이크와 양질의 섬유소원을 보충해줄 수 있는 비트펄프를 기용함으로써 고영양 설계에 맞는 원료를 과감히 투자했다.

우성의 반추사료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환 축우PM은 '농가가 있어야 사료회사도 존재한다'는 원칙아래 고객밀착 서비스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활동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객과 함께 땀 흘리며 하절기 소들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보다 생산성 높은 농장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여름을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할 것이다.

○ **문의 : 이상환 축우PM 010-4419-1063**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 HACCP 심사 5년 연속 무결함 인증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 김해공장이 2016년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 사료공장 정기 심사에서 김해공장이 5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안전한 배합사료 공장의 롤 모델 모습을 보여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공장은 국내 사료관리법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실히 충족시키며, 글로벌 기업 카길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초한 식품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잘 적용하며 꾸준한 식품안전 관리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충식 김해공장 공장장은 "김해공장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HACCP 활동을 진행한 것이 지난 5년간 HACCP 무결함 인증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안전한 사료공급을 통해 양축 농가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김해공장은 2000년 한국능률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우수공장 인증을 받았고, 2004년 국내 사료업계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2010년 국내 사료업계 최초 KOSHA 18001 안전보건인증을 취득 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HACCP 5년 연속 무결함 인증을 계기로 업계에 사료 안전 마인드를 확산시켜 사료 제조 및 유통 체인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경감하여 안전 사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명성
작업폭 7.3M 모우어 컨디셔너 듀엣7300(Duett7300) 출시



㈜명성(대표 이인현)은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인을 위한 작업폭이 7.3m인 트랙터 후방 장착용 모우어 컨디셔너 듀엣7300(Duett7300) 모델을 출시하였다.

듀엣7300은 후방핸들이 장착된 180마력이상의 고성능 트랙터에서 최적의 작업성능이 발휘되도록 개발되었고, 이동폭은 2.8m로 모니터 조작에 의해서 기체 양쪽이 접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고강도 커터바와 특수칼날 장착으로 절단력이 우수하고, 벨트가 아닌 체인 구동 방식으로 수단그라스와 같이 길이가 긴 작물도 막힘 없이 고성능 작업이 가능하다.

버터플라이(접히는) 방식의 컨디셔너는 반드시 전방 컨디셔너와 동시작업을 해야만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9m가량의 너무 넓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 지형에서는 과하게 크고 이동 및 모우어 작업 시 계속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주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듀엣7300은 작업폭 7.3m로 국내 대규모 농지에 이상적인 사이즈이고, 작업 중 후방만 주시하기 때문에 작업속도도 빠르고 가장 큰 장

점은 작업자가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이 없고 편안하다.

듀엣7300은 더블 하이드로 발란스 시스템으로 지면과의 안정적인 서스펜션 작업이 가능하고, 측면 가이드는 트랙터 유압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주)명성에서 공급하는 엘호社의 제품들은 컨디셔너 부분에 I형 핑거를 사용함으로 마모성이 낮고, 철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 정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명성 이인현 대표는 "농업 경영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선진기술을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정부 3.0 우수 공공기관」 선정 '국민행복 안심먹거리 구현'을 위한 노력 인정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대표되는 정부 3.0 가치를 구현하고, 고객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는 전체 116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평가대상 분류 : 공기업 I 형 10개, 공기업 II 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18개, 강소형 55개

강소형 유형에서는 축산물인증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8개 기관이 보통(上), 13개 기관은 보통(下), 23개 기관이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축산물인증원은 정부 3.0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지난해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임직원 대상 교육, 타기관의 우수 사례 공유, 언론 홍보, 기관간 협업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국민 안전정보시스템(FRESH) DB 구축 사업"과 같이 소비자에 먹거리 안전정보 제공 기반을 조성하였고,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DB화하여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기관홍보자료, 공모전 개최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한 약 100여개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고객들의 편의 제고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202,120천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진만 원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표되는 정부 3.0의 가치확산을 위해 「정부3.0 민간전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먹거리를 통해 국민이 피부로 정부 3.0을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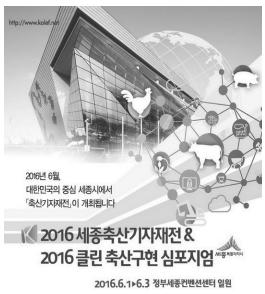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정부3.0 실현을 위한 노사 간담회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은 지난 9일 축평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및 노조원들과 정부3.0 실현을 위한 '노사 한마음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축평원 경기지원 노사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시 갈등관리, 직급·세대·性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원인 해결, 경영관련 현안문제 공유 및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3.0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 하였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16 축산기자재전 & 2016 클린축산구현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와 세종시, 축산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16 축산기자재전'이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산분야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본 전시회에는 축사시설 및 설비자재, 분뇨처리자재, 조사료 장비, 사료, 동물약품 및 첨가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고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는 '2016 클린 축산구현 심포지엄'이 전시기간 3일간 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다. 한우분야 클린축산세미나는 6월 3일 10시25분부터 13시30분까지 진행된다.

○ 문의 : 02-521-1990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한우소식

한우, 국내 소비자 선호 육질·육량 형태로 진화 축과원, 재래·외국품종 유전체분석 결과 밝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외국소 품종과는 달리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육질과 육량의 형태로 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과원에 따르면 한우 100마리와 칡소 20마리, 흑우 20마리 등 국내 재래품종과 연변우 34마리, 앵거스 20마리 등 외국 품종 194마리에 대한 유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우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진화한 16개 유전체 영역에서 21개의 유전자가 순수한 형태를 띤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전자는 고기의 육질을 좋게 만들고 육량을 늘리며, 멜라닌 색소

를 조절해 털을 노란색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들 유전자가 순수한 형태를 띤다는 것은 각각의 유전자가 고르게 발달했다는 의미로, 이는 육질과 육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축과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축과원은 한우의 APP 유전자(Amyloid Precursor protein·아밀로이드 전구물질 단백질 유전자)에서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단일염기서열 변이정보도 발견했다. APP 유전자는 육류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유전자로, 축과원은 이 변이가 한우의 근육 내 단백질 구조를 바꿔 육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계 앵거스 품종은 한우와 칡소·흑우와 단 1% 정도의 유전체를 공유, 우리나라 품종과 유전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응우 축과원 동물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가 우수한 품종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과 다른 품종과 차별화된 유전적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 등 한우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재래가축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고유 품종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한우 수출, 1등급 이상만 하도록"…한우수출협의회 품질기준 마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 '한우수출협의회'로 공식 활동

한우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시장개척 등 한우 수출 전반을 컨트롤 할 민·관·학 협의체의 공식 명칭이 '한우수출협의회'로 확정됐다. 또한 1등급 이상 한우만 수출키로 하는 등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수출기준도 마련됐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 단체, 도축 및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이후 한우 수출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의회에 참여할 위원(기관, 협회, 민간업체)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야 간사, 참여 위원 별 담당업무를 결정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선정에 앞서 위원회 명칭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 했으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한우수출협의회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어 초대 위원장은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가 맡는 것으로 했고, 농식품부가 한우 수출 지원 업무를 총괄하되 한우협회가 총괄·지원분야 간사,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에서 생산 분야 간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유통분야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냈다.

또한 축산과학원에서 수입바이어용 한우고기 전문 안내서 제작 지원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한우 고급육 관련 통계를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출 대상국 시장조사와 해외시장 개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수출협의회는 국내 농산물 수출의 고질병

인 과당경쟁 및 품질저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용 한우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한우 수출에는 고급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암소·거세우 가운데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고기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암소의 지육 중량 기준은 300~450kg 사이로 정했다.

또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운송과정에서도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시 냉장온도관리가 가능한 컨테이너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 초기 물량이 적은 경우 및 현지 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스티로폼 박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수입바이어들이 한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한우고기 전문안내서를 제작하고, 해외에서도 한우에 대한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한 영문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수출 시 공동 브랜드를 사용키로 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재원을 활용해 홍보물 및 수출물류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한우가격 상승에 미국산 쇠고기 점유 확대
가격오른 호주산 점유율↓, 롯데마트서 순위 역전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인 호주산 쇠고기 또한 중국 등지에서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수입산 쇠고기 매출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013년 21.6%, 2014년 19.9%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1.9%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1~4월에는 53%까지 상승했다. 호주산 쇠고기를 역전한 것이다. 호주산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78.1%, 77.9%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왔지만 지난해 67.3%로 줄어든 데 이어 올 1~4월에는 47%로 하락했다.

이는 가격경쟁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산 쇠갈비의 2013년 평균 가격은 100g당 2780원이었지만, 올 1~5월 평균 가격은 1984원으로 28.6% 내려갔다. 반면 한우 갈비(1등급 기준)는 같은 기간 100g당 4178원에서 4995원으로 19.6% 올랐고, 호주산은 1980원에서 2233원으로 12.8% 상승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마트에서도 감지된다. 이마트에서 수입산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의 점유율은 지난해 1~4월 18%에 불과했지만, 올 1~4월에는 28%로 확대됐다.

그만큼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축소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우 매출도 전년 대비 4%가량이 줄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김영란법 시행이 국내 쇠고기 판매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용 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고급화에 초점을 맞춰 왔던 한우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